

한국인과 동남아시아인의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 차이 비교

김선주 · 박현정 · 이경희*
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과

Comparison of Food Neophobia Scale and Food Involvement Scale Between Koreans and East-South Asians

Sun-Joo Kim, Hyun-Jung Park, Kyung-Hee Lee*
Department of Food Service Management, Kyunghee University

Abstract

An individual's food-related personal traits play an important role in influencing personal food choice and habits. According to culture, their influence can manifest differently. To ascertain personal traits about food, FNS (food neophobia scale) and FIS (food involvement scale) were employed in recent studies.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food culture and food choices of East-South Asians who live or stay in Korea through comparison of FNS and FIS. Eighty Koreans and 233 East-south Asians (Indonesians, Filipinos, Malaysians, Vietnamese, Thai, Singaporeans, and Bangladeshi) completed a questionnaire to measure FNS (10 questions), FIS (12 questions), and sociodemographic conditions (9 questions). ANOVA was conducted to ascertain FNS and FIS between the groups, and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which sociodemographic factors had an effect. The items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ge, marital status, nationality, religion, occupation, educational background, monthly income, and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FN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with regard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cept gender, age, and marital status, whereas FI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nationality, religion, occupation, educational background, monthly income, and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suggest that nationality strongly affected FNS and FIS, and FIS was also affected by gender.

Key Words: Korean, East-south Asian, Food Neophobia Scale, Food Involvement Scale

1. 서 론

음식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식품 내재적인 자극 또는 식품의 감각적인 요소와 같은 식품 요인과 식품의 외재적인 자극 또는 인지적 정보, 물리적 환경, 개인적 특성 등의 비식품 요인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Eertmans 등 2005). 비식품적인 요인 중 개인적 특성은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기호, 성격, 인구 통계적 특성, 음식에 대한 심리적·생리적인 욕구 등이 포함되며, Lee & Hong(2001)은 소비자의 개성, 자아개념, 라이프스타일 등과 같은 개인 특성 변수들이 제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Furst 등(1996)의 연구에서도 음식 선택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심리적, 생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욕구와 선호에 기반하여 음식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특성은 가치의 변화를 통하여 개인의 음식 선택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는데(Chen 2007), 음식과 관련된 개인적인 성격 특성 중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는 소비자 반응과 관련된 연구의 도구로써 사용되고 있다.

푸드네오포비아는 신음식 혐오증이라고도 하며, 새로운 음식을 회피하는 경향(Pliner & Hodden 1992)으로, 푸드 네오포비아 척도(FNS: Food Neophobia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새롭거나 흥미로운 경험을 찾아나서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네오포비아 정도가 낮다는 연구결과(Otis 1984; Teraski & Imada 1988)를 바탕으로 하여 Pliner & Hodden(1992)은 네오포비아를 개인의 성격 기질로 보고, 네오포비아-네오펠리아의 개념을 진단하여 푸드네오포비아 척도를 개발하였다. 푸드네오포비아는 음식을 먹는 횟수, 소비량과도 관련이 있으며, 음식에 대하여 기대하는 정도나 실제 좋아하는 정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liner & Hobden 1992; Pliner 등 1998; Eertmans 등 2005). 그리고 푸드 네

*Corresponding author: Kyung-Hee Lee, Department of Foodservice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1 Hoeigi-dong, Dongdaemoo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847 Fax: 82-2-964-2537 E-mail: lkhee@khu.ac.kr

오포비아는 건강한 식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Koivisto-Hursti & Sjoden 1997), 연령, 성별, 집안 내력 등 많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Hwang & Lin 2010). 즉, 이는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의하여 푸드 네오포비아 지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음식 관여도는 개인이 일상 속에서 지각하는 음식의 중요성 수준으로 정의된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특성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음식 선택 기준을 수립하는데 작용하며 음식 섭취 및 음식에 대한 생각을 즐기고 더 나아가 태도를 거쳐 실제 음식관련 구매 행위로 연계된다. 즉, 구매 행위에 대하여 각 개인이 갖는 자기 관련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각 개인의 태도와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Kassarijian 1981). 음식관여도는 최근 음식 선택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강조되고 있는 개인적인 음식과 관련된 속성이며(Eetermans 등 2005), 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Marshall & Bell(2003)은 개인이 지각한 식생활의 중요성과 관심 정도를 음식 관여도라고 정의하였으며, 관여도는 음식과 식습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찰해야 할 중요한 매개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Eertmans 등(2005)은 음식 선택동기와 식행동의 관계가 개인의 음식관여도의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분석해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음식관여도가 음식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1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인

589,532명이었으며, 필리핀 24,728명, 인도네시아 17,371명, 태국 15,633명, 베트남 59,339명, 방글라데시 4,593명 등의 동남아시아인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20% 이상으로 적지 않은 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음식선택과 관련된 개인적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한식을 세계화하는데 있어서 한식의 현지 정착을 위해서도 이들 민족의 음식 선택과 관련 있는 푸드 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동남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및 음식관여도 차이를 한국인과 비교 분석하여 동남아시아인의 음식문화 및 음식선택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시기

한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인 233명과 한국인 80명, 총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2010년 2월 2일부터 2월 16일까지, 2011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하여, 한국어나 영어 중 읽고 더 이해하기 쉬운 설문지를 선택하여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외국인이 설문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설문에 앞서 체류 기간이 다른 소수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 및 영문 설문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Table 1> The contents of questionnaire for food neophobia and food involvement

FNS ¹⁾	I'm constantly sampling new and different foods.
	I don't trust new foods.
	If I don't know what is in a food, I don't try it.
	I like foods from different countries.
	Ethnic foods looks too weird to eat.
	At dinner parties, I will try a new foods.
	I am afraid to eat things I have never had before.
	I am very particular about the foods I will eat.
	I will eat almost anything.
	I like to try new ethnic restaurants.
FIS ²⁾	I don't think much about food each day.
	Cooking or barbequing is not much fun.
	Talking about what I ate or am going to eat is something I like to do.
	Compared with other daily decisions, my food choices are not very important.
	When I travel, one of the things I anticipate most is eating the food there.
	I do most or all of the clean up after eating.
	I enjoy cooking for others and myself.
	When I eat out, I don't think or talk much about how the food taste.
	I do not like mix or chop food.
	I do most or all of my own food shopping.
I do not wash dishes or clean the table.	
I care whether or not a table is nicely set.	

¹⁾FNS: Food Neophobia Scale, ²⁾FIS: Food Involvement Scale

알아보는 절차를 거쳤다.

2. 조사내용

한국인과 동남아시아인의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문지는 <Table 1>과 같이 Pliner & Hodden(1992)이 개발한 푸드네오포비아 지수 측정 10문항과 Marshall & Bell(2004)이 개발한 음식관여도 지수 측정에 관련된 12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version 16.0)로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추출된 요인의 평균 차이를 분산분석(ANOVA)하고, 사후 검증을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이 푸드네오포비아 및 음식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았다. 성별은 남자가 149명(47.6%), 여자가 164명(52.4%)으로 성별 비율이 유사하였고, 연령은 20대가 152명(48.6%)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였으며, 30대, 40대 순으로 많았고, 50대와 19세 이하는 극히 적었다. 국적은 인도네시아가 105명(33.5%)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한국 80명(25.6%), 필리핀 60명(19.2%), 태국,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의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 31명(9.9%), 베트남 22명(7.0%), 말레이시아 16명(5.1%) 순이었다. 종교는 천주교(25.9%), 기독교(25.2%), 무교 및 힌두교, 통일교 등의 기타 종교(23.0%), 이슬람교(13.4%), 불교(12.5%) 순이었다. 직업은 학생(41.2%), 기술기능직(16.3%), 사무·서비스직(14.4%), 주부(11.8%), 전문직(9.9%), 공무원(6.4%)의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았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34.2%), 고졸(31.0%),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21.1%), 전문대학 재학 또는 졸업(13.7%)의 순으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조사자가 약 70%에 달하는 높은 교육 수준을 나타내었고,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과 100만원~200만원이 46.3%와 34.8%이었으며, 전체의 80% 이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국 거주 기간은 1년 이상~5년(31.3%), 10년 이상(31.0%), 6개월 이하(15.3%), 5년~10년(13.7%), 7개월~1년(8.6%)의 순서였으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한국인이 26.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동남아시아인의 경우 4.5%에 불과하였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차이

한국인과 동남아시아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푸드

네오포비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성별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는 남자가 3.74점으로 여자(3.59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uorila 등(2001)의 연구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며, Alley & Burroughs(1991)도 여자가 남자보다 새로운 음식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연령, 결혼 여부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는 차이가 없었다. Tuorila 등(2001)의 연구 결과에서는 다른 연령에 비하여 나이가 많은 66-80세의 경우 FNS가 높았다. 이는 나이가 많은 노년층에서는 오랜 식습관이 굳어져 있어 새로운 음식에 대한 시도보다는 먹어왔던 음식에 대하여 익숙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FNS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조사대상자의 구성이 대부분 호기심이 왕성한 20대-40대의 성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노년층은 극히 적었기 때문에 그룹 간의 FNS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국적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는 말레이시아가 4.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기타 국가, 베트남, 한국의 순이었으며 $p<0.01$ 의 수준에서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Lee(1994)의 연구에서 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인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은 종교적인 금기 등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음식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민의 약 90%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Park 등 2003) 음식에 대한 제약이 많기 때문에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사료된다. Flight 등(2003)의 도시와 지방에 사는 호주인의 푸드네오포비아 성향을 비교한 연구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발전된 경우 음식을 포함한 다양한 자극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상황에 자주 노출될수록 친숙하지 않은 음식을 대할 기회가 많아져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IMF에서 발표한 2010년 세계 GDP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12위로 인도네시아(15위), 태국(24위), 말레이시아(29위), 필리핀(33위), 싱가포르(29위), 베트남(40위), 방글라데시(44위) 등 조사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수준을 나타내어 경제적으로 발전된 경우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종교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슬람교(4.04점), 불교(3.72점), 천주교(3.67점), 기독교(3.66점), 기타(3.6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p<0.01$ 의 수준에서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는 국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음식에 대한 종교적 제약이 많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슬람교에 비하여 음식에 대한 제약이 완화된 종교

일수록 네오포비아 지수가 낮은 경향을 보여 종교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는 기술기능직이 4.1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부(3.78점), 공무원(3.75점), 학생(3.58점), 사무·서비스직(3.49점), 전문직(3.21점) 순으로 $p<0.01$ 의 수준에서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는 고졸 이하(3.92점),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3.85점),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3.48점),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3.47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p<0.01$ 의 수준에서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학력이 높은 경우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낮아진다는 Tuorila 등(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는 100만원~200만원이 3.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0만원 미만(3.64점), 300만원 이상(3.35점), 200만원~300만원(3.33점)의 순으로 낮아졌으며, $p<0.01$ 의 수준에서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네오포비아 지수가 낮았다.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는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3.25점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으며, 6개월 이내(3.68점), 7개월~1년(3.74점), 5년~10년(3.85점), 1년~5년(3.9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나 $p<0.01$ 수준에서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푸드네오포비아 지수가 낮아지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음식관여도 차이

한국인과 동남아시아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음식관여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4.64점으로 남자(4.35점)보다 높았으며 $p<0.05$ 의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가 음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신경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Bell & Marshall(2003)의 연구 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음식관여도를 보인 것과 같은 결과였다.

연령과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음식관여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Marshall & Bell(2003)의 연구에서 FIS는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27-45세, 46-64세, 19-26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음식관여도는 자기 의지대로 음식을 선택하여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대체로 가정을 구성하여 가족의 식생활을 담당해야 하는 성인 연령층이나,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는 노년층에서 FIS가 높아지고, 결혼 전의 연령에서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대체로 제공되는 음식을 수동적으로 받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적고 FIS가 낮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성인으로 구성되어있지만, 미혼자의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아 식생활을 주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년층의 구성 비율이 매우 낮아 FIS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국적에 따른 음식관여도 지수는 한국이 5.14점으로 가장 높았고, 베트남(4.67점), 말레이시아(4.61점), 필리핀(4.36점), 기타(4.26점), 인도네시아(4.11점) 순이었으며 $p<0.01$ 의 수준에서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들의 음식에 대한 관여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식생활을 윤택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음식관여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또한 종교적인 측면에서 음식에 대한 제한이 엄격하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정되어 있을 때보다 음식 선택에 자유로울 수 있을 때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음식관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반된 작용을 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는 국적에 따른 음식관여도에 대한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에 따라서는 불교(4.77점), 기타 종교(4.73점), 기독교(4.68점), 천주교(4.21점), 이슬람교(4.08점)의 순이었으며 $p<0.01$ 의 수준에서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조사자의 종교 중 가장 음식에 대한 제약이 심한 이슬람교의 경우 푸드 네오포비아 지수는 높지만 음식에 대한 관여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업에 따른 음식관여도 지수는 전문직(4.85점), 주부(4.59점), 학생(4.55점), 공무원(4.54점), 사무·서비스직(4.53점), 기술기능직(4.04점) 순으로 $p<0.01$ 의 수준에서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문직과 사무·서비스직의 음식관여도는 기술기능직에 비하여 높았다.

학력에 따른 음식관여도 지수는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4.71점),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4.51점), 고졸(4.44점),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4.08점) 순으로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p<0.01$)를 나타내어 학력 수준이 높은 경우 음식관여도 지수가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음식관여도 지수는 300만원 이상(5.11점), 200~300만원(4.81점), 100만원 미만(4.51점), 100~200만원(4.23점)으로 소득이 높은 그룹이 음식에 더 높은 관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직업, 학력, 소득 간에는 상호 관련이 있어서 학력이 높으면 좋은 전문 직업을 갖게 되고,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세 가지 요인과 음식관여도 사이에는 정비례하는 일관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음식관여도 지수는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5.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개월~1년(4.50점), 6개월 이내(4.42점), 5년~10년(4.23점), 1년~5년(4.17점) 순이었으며 $p<0.01$ 수준에서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거주기간에 따른 일관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food neophobia and food involvement scale

Section	Variables	Frequency (%)	FNS ¹⁾	FIS ²⁾
Gender	Male	149 (47.6)	3.74	4.35**
	Female	164 (52.4)	3.59	4.64**
Age (years)	Below 19	7 (2.2)	4.11	4.57
	20-29	152 (48.6)	3.56	4.54
	30-39	102 (32.6)	3.86	4.33
	40-49	45 (14.4)	3.50	4.67
	50-59	8 (2.6)	3.59	4.74
Marital status	single	213 (68.1)	3.67	4.47
	married	100 (31.9)	3.65	4.57
Nationality	Korea	80 (25.6)	3.12 ^c	5.14 ^a
	Indonesia	105 (33.2)	3.92 ^a	4.11 ^c
	Philippines	60 (19.2)	3.81 ^{ab}	4.36 ^{bc}
	Malaysia	16 (5.1)	4.00 ^a	4.61 ^b
	Vietnam	22 (7.0)	3.47 ^{bc}	4.67 ^b
	Others (Thailand, Singapore, Bangladesh)	31 (9.9)	3.89 ^a	4.26 ^{bc}
Religion	Christianity	79 (25.2)	3.66 ^b	4.68 ^a
	Buddhism	39 (12.5)	3.72 ^b	4.77 ^a
	Catholicism	81 (25.9)	3.67 ^b	4.21 ^b
	Islam	42 (13.4)	4.04 ^a	4.08 ^b
	Others	72 (23.0)	3.66 ^b	4.73 ^a
Occupation	Student	129 (41.2)	3.58 ^{bc}	4.55 ^a
	Sales man · Office worker	45 (14.4)	3.49 ^{bc}	4.53 ^a
	Technician	51 (16.3)	4.19 ^a	4.04 ^b
	Professional	31 (9.9)	3.21 ^c	4.85 ^a
	Public servant	20 (6.4)	3.75 ^b	4.54 ^a
	Housewife	37 (11.8)	3.78 ^b	4.59 ^a
Educational background	~High school	97 (31.0)	3.92 ^a	4.44 ^a
	In or Graduate college	43 (13.7)	3.85 ^a	4.08 ^b
	In or Graduate university	107 (34.2)	3.48 ^b	4.71 ^a
	In or Graduate graduate school	66 (21.1)	3.47 ^b	4.51 ^a
Monthly income	>₩1,000,000	145 (46.3)	3.64 ^{ab}	4.51 ^c
	₩1,000,000-2,000,000	109 (34.8)	3.87 ^a	4.23 ^{bc}
	₩2,000,000-3,000,000	29 (9.3)	3.33 ^b	4.81 ^{ab}
	<₩3,000,000	30 (9.6)	3.35 ^b	5.11 ^a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6 months	48 (15.3)	3.68 ^a	4.42 ^b
	7months-1year	27 (8.8)	3.74 ^a	4.50 ^b
	<1-5 years	98 (31.3)	3.96 ^a	4.17 ^b
	<5~10years	43 (13.7)	3.85 ^a	4.23 ^b
<10 years	97 (31.0)	3.25 ^b	5.00 ^a	
Total		313		

**p<0.01, *^{a-c}Means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¹⁾FNS: Food Neophobia Scale

²⁾FIS: Food Involvement Scale

4. 푸드네오포비아 및 음식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 4>와 같았다.

푸드네오포비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적으로 베타값은 -0.322이었고 p<0.01의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영

향을 미쳤다. 그 다음은 학력($\beta = -0.113$)이었으며, 가장 영향을 적게 미친 요인은 연령($\beta = -0.014$)이었으나 국적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유의적이지 않았다. 종교는 음식 선택과 관련이 깊어 푸드네오포비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 종교에서만 음식 선택에 많은 제

<Table 3> The effect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FN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Std. Err	t	sig
FNS	Constant		0.280	16.765	0.000
	Gender	-0.053	0.092	-0.958	0.339
	Age	-0.014	0.066	-0.215	0.830
	Marital Status	-0.039	0.102	-0.691	0.490
	Nationality	-0.322	0.021	-4.583	0.000**
	Religion	-0.057	0.031	-1.051	0.294
	Occupation	-0.033	0.022	-0.487	0.627
	Educational background	-0.113	0.047	-1.759	0.080
	Monthly income	-0.019	0.055	-0.310	0.757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0.018	0.040	-0.277	0.782

$R^2=0.156$, Adjusted $R^2=0.131$, $F=6.231$, $Sig=0.000$

FNS: Food Neophobia Scale, ** $p<0.01$

<Table 4> The effect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FI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Std. Err	t	sig
FIS	Constant		0.322	10.692	0.000
	Gender	0.123	0.106	2.272	0.024*
	Age	-0.002	0.076	-0.029	0.977
	Marital Status	0.059	0.117	1.051	0.294
	Nationality	0.406	0.024	5.898	0.000**
	Religion	-0.032	0.035	-0.592	0.554
	Occupation	0.034	0.026	0.518	0.605
	Educational background	-0.078	0.055	-1.235	0.218
	Monthly income	0.100	0.063	1.629	0.104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0.004	0.046	0.056	0.956

$R^2=0.188$, Adjusted $R^2=0.164$, $F=7.809$, $Sig=0.000$

FIS: Food Involvement Scale, * $p<0.05$, ** $p<0.01$

한을 두고 있고, 음식 선택을 엄격하게 하지 않는 다른 종교들의 영향도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종교는 푸드네오포비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음식관여도의 경우 푸드네오포비아와 마찬가지로 국적이 유의적으로($p<0.01$)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베타값은 0.406이었다. 국적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별로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beta=0.123$). 음식관여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연령이 음식관여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연령에서는 편식을 하는 등 음식에 대하여 푸드네오포비아 성향이 강하고 음식관여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연령이 낮은 조사대상자의 비율이 낮아 두 요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가 국적이 달라 문화와 민족이 다른 집단 사이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므로 음식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데 이들 지수가 적합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거주 또는 체류 중인 동남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지수와 음식관여도 지수를 한국인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는 남성이 149명(47.6%), 여자가 164명(52.4%), 연령대는 19세 이하(2.2%), 20대가 152명(48.6%), 30대가 102명(32.6%), 40대가 45명(14.4%), 50대가 8명(2.6%)으로 총 313명이었다. 국적은 인도네시아가 105명(33.2%)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80명(25.6%), 필리핀 60명(19.2%), 태국,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의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 31명(9.9%), 베트남 22명(7.0%), 말레이시아 16명(5.1%)이었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는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령, 결혼 여부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는 차이가 없었다. 국적에 따라서는 네오포비아 지수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높았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 베트남, 한국의 순이었으며 $p < 0.01$ 의 수준에서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종교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슬람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기타 종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p < 0.01$ 의 수준에서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는 기술기능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부, 공무원, 학생, 사무·서비스직, 전문직 순으로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학력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는 고졸 이하,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의 순이었으며, $p < 0.01$ 의 수준에서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푸드네오포비아 지수는 100~20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200~30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푸드네오포비아 지수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음식관여도 지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며 $p < 0.05$ 의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과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국적, 종교, 직업, 학력, 소득에 따른 음식관여도 지수는 모두 $p < 0.01$ 의 수준에서 그룹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한국이 가장 높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 인도네시아의 순이었다. 종교의 경우 불교, 기타 종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의 순이었고, 직업에 따른 음식관여도 지수는 전문직, 주부, 학생, 공무원, 사무·서비스직, 기술기능직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4년제 대학 재학 또는 졸업,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고졸,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순이었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음식관여도 지수는 300만원 이상, 200~300만원,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거주기간에 따라서는 음식관여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넷째,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적은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성별은 음식관여도에만 국적 다음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상으로 푸드네오포비아와 음식관여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음식을 선택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인구통계학적인 요소인 성별, 국적, 종교, 학력, 직업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특히 다른 민족 간의 음식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Alley Thomas R, Burroughsa W Jeffrey. 1991. Do men have stronger preferences for hot, unusual, and unfamiliar foods?, *The J. of General Psychology*, 118(3):201-214
- Audrey Eertmans, An Victoir, Greet Vansant, Omer Van den Bergh. 2005. Food related Personality Traits, Food choice motives and food intake: Mediator and moderator relationship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6(8):714-726
- Bell R, Marchall DW. 2003. The construct of food involvement in behavioral research: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Appetite*. 40(3):235-244
- Chen MF. 2007. Consumer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s in relation to organic foods in Taiwan: Moderating effects of food-related personality trait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8(7):1008-1021
- Choi JY. 2009. Customer Satisfaction and revisit intention based on Food Neophobia and Selection attribute of Ethnic restaurants, Master Degree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pp 1-82
- Eertmans A, Victoir A, Vansant G, Van den Bergh O. 2005. Food-related personality traits, food choice motives and food intake: Mediator and moderator relationship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6(8):714-726
- Flight Ingrid, Leppard Phillip, Cox David N. 2003. Food neophobia and associations with cultural diversity and socio-economic status amongst rural and urban Australian adolescents, *Appitite*, 41(1):51-59
- Furst T, Connors M, Bisogni CA, Sobal J, Falk LW. 1996. Food choice: A conceptual model of the process, *Appetite*, 26(3):247-265
- Hwang JH, Lin Ting-Ning. 2010. Effects of food neophobia, familiarity and nutrition information on consumer acceptance of asian menu items. *Journal of Hospitality Marketing and Management*. 19(2):171-187
- Kassarjian HH. 1981. Low Involvement: A Second Look,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2:341-352
- Koivisto-Hursti UK, Sjoden PO. 1997. Food and general neophobia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elf-reported food choice: Familial resemblance in Swedish families with children of ages 7~17 years. *Appetite*. 29(1):89-103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0. Statistical Database, Population, House hold, International Migration
- Lee MG, Hong ST. 2001. Understand of customer behavior, Bobmunsa. Seoul. p 415
- Lee WJ. 1994. A case study on living conditions and adative strategy of illegal Bangladesh workers in Korea, Doctor Degree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Marshall DW, Bell R. 2003. The construct of food involvement in behavioral research: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Appitite*, 40(3):235-244
- Marshall DW, Bell R. 2004. Relating the food involvement scale to demographic variables, food choice and other construct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5(7-8):871-879
- Park KS, Jung US, Han JS, Park UJ. 2003. World foodculture.

Hyoil Books. Seoul. pp 106-107

Pliner P, Hobden K. 1992.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the trait of food neophobia in humans. *Appetite*. 19(2):105-120

Pliner P, Lahteenmaki L, Tuorila H. 1998. Correlates of human food neophobia. *Appetite*. 30(1):97-115

Terasaki Masahara, Imada Sumio. 1988. Sensation seeking and food prefer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9(1):87-93

Tuorila H, Lahteenmaki L, Pohjalainen L, Lotti L. 2001. Food neophobia among the Finns and related responses to familiar and unfamiliar food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2(1):29-37

2011년 7월 13일 신규논문접수, 8월 19일 수정논문접수, 8월 24일 채택